74~76격동반세기-12 1904.5.9 4:46 AM 페이지74

정부종합청사 - 권위의식 탈색시킨 아파트형으로

과천종합청사

이용선
작가 · 언론인

지하철 3호선을 타면, 종로3가→안국→중앙청→독립문역을 통과한다. 그런데지금은‘ 중앙청 ’이 있던‘ 중앙청역 ’이없어져버려‘ 경복궁역 ’으로개명되었다. 하찮은변화이지만, 서울에서중앙청역만이아니라아예중앙청이라는말이행방불명되어버렸다.

사라져버린 권력의 상징‘ 중앙청 ’

“ 그런가? 듣고 보니 이젠 어디에도 중앙청이라는 말이 없어져버렸네. 그럼 옛날 중앙청은 어디로 갔소? ”

“ 정부종합청사. 중앙청 건너편에 새로 말쑥하게 지어진 19층짜리 종합청사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 있소. ”

중앙청이 정부종합청사로 변한 것이지만 지금은 옛 중앙청의 느낌은 들지 않는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앙청이라고 하면 권력의 상징이었고 국정(國政)의 심장부였다. 지금과 같은 지방화 시대가 아니고 중앙 집권 정부 때의 중앙청은 온통권위의상징이어서모든지방사람이나공무원들이고개를쳐들고흠모하는권력의심장부, 출세의 종착역으로알았다.

“ 일제시대에는그 건물이 사이토(齋藤實)나데라우치(寺內正毅) 같은 조선 총독이 있던 조선총독부 아니었소? 동양에서는 제일 크고 권위 있게 지어졌다는식민지일본제국의통치를상징했지요. 그러기 위해 외관부터 우람하고 당당하고 위압적이었어요. 그건물이해방이후에는대한민국의중앙청으로뽐내더니, 정부종합청사가지어지면서박물관이안되었소? 총독부→중앙청이라는권력의핵심적상징건물이깨진옛날도자기나전시하는박물관이되더니, 김영삼대통령때는아예건물자체를헐어버리고그 자리에있던박물관은용산미8군기지안에새로짓고있지않소? ”

‘ 관료 의식 을 쏙 빼버린 아파트형종합청사

이것이바로시대가변하는과정을‘ 건물 로표현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말이지‘ 관료 는 벼슬이니까 권위로 힘을 잡고 살았다. 그래서 1983년6월중앙청에서길건너한발앞에새로지어진 종합청사로이사를갈때만해도의식적으로몸에밴 관료적사고방식을얼른고치기가힘들었을것이다.

“ 이것은 정부청사가 아니라 마치 아파트 같이 지어놓지않았소. 천장은왜이리낮아? 중앙청건물은 천장높이가 3.2m인데여긴 2.6m밖에안되네. 집은 천장이 높고 홀이 커야 권위가 사는데 여기는 마치 성냥갑아파트같지않소? ”

중앙청건물을떠나기가못내아쉬웠을것이다. 해방후그건물에서만내각수반3명, 국무총리서리8명을 빼고도 자그마치 16대 국무총리를 배출했고 500여명의장관님들이국사를논의했던집이다.

그러나이제는안옮길수가없었다. 정부기구가 자꾸커지고관료인원이늘어나면서청사부족현상이극에 달했던것이다. 그래서웬만한정부부처는 자기청사에함께모여서살지도못하고여러건물에 흩어져있거나남의건물을빌려정부가보따리를싸 들고가세들어사는판이었다.

74~76격동반세기-12 1904.5.9 4:46 AM 페이지75

경제기획원은3개국(局)이대림빌딩을임차해청사를꾸몄고, 재무부도4개국이대림빌딩에세들어있었다. 통일원은옛날남산에있던KBS 방송국건물에, 체육부는잠실교통회관에세들어있었다.

“ 동자부(動資部)는어디있소? ”

“ 코오롱빌딩에있소. ”

“ 노동부는? ”

“ 복지회관에있소. ”

이밖에도당시에는△원호처(광복회관) △수산청(대우빌딩) △공업진흥청(복지회관) △특허청(제일생명) △환경청(신아빌딩) △해운항만청(삼양빌딩) △헌법위원회(정동회관) 등17개부처 산하의 3,500여명의관리들이계속셋방살이를하는신세였다.

“ 종합청사가생기고난뒤에도말씀이오? ”

“ 종합청사 말고 과천(果川)에 제2정부종합청사가생기고난뒤에도들어갈집이없습니다. ”

이래서과천에있는제2종합청사는1 · 2동준공에이어3 · 4동건설을바쁘게서둘러야했다.

1983년6월1일까지입주를끝낸정부제1종합청사는소위로열층인9층에총리실을마련하고, 중앙청에서부터 함께 있던 외무부(6 · 7 · 8층), 총무처(10 · 11 · 12층), 법제처(12층)가그주변에포진했다. 총리실및장관실은채광이나자리가제일좋다는청사의동남쪽코너에있는각1호실에마련했다.

총리실 붉은 카펫은중앙청시대와 똑같아

그런데행정부의수장(首長) 격인총리실에는각별히신경을썼다. 총리는외국손님을만나는일이많고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영의정이나마찬가지인데하위부처와한청사안에있으며 ‘ 너 ’ 나 ’하면서지낼수는없지않느냐는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수상부(首相府)와 같은 독립청사를 써야권위가선다고해서한때는덕수궁석조전이나삼청동에있는감사원건물을생각했지만민주주의시대의정부니까상하동거(上下同居)와업무보고의신속성을 생각해 종합청사로 입주했지만 총리실 바닥의붉은카펫은옛날중앙청시대처럼그대로가져다가깔기로했다.

“ 그런데 붉은 카펫을 깔고 보니 출입문이 거슬렸습니다. ”

“ 문짝이어때서요? ”

“ 출입문이철제이고보니외국수상등을맞는권위에서경박성을느낀다는것이지요. 그래서총리접견실, 집무실과국무회의실문짝은모두목제문으로다시바꿨습니다. ”

국무회의실은천장이 높은맨꼭대기 19층 1호실로잡았는데중앙청때보다2평이더넓었다. 과천청사와는왕복1시간 30분이상이소요되는거리이기때문에 과천청사에서 올 장관들을 배려해국무위원대기실을옆에만들었고과천종합청사 종합청사사이에헬리콥터도곧가동시킬예정이라고한다.

아무리몸을낮추어도관청은작위(지위)로먹고산다. 그래서 지위는 곧 권위 의식이고, 이것은 ‘ 넓은방 을 차지하는것으로표현되었다. 그때종합청사에 새로입주한 공무원 식구는약 4,000명이었는데이것을 100m×29m의 넓이로 계산하면 매 층당순수사무실면적은 628평이었으니공무원1인당쓰인사무실공간면적은평균1.5평이었다.

“ 그러나장관실은50평, 차관실은30평, 기획관리실장방은18.7평씩나눠졌지요. ”

이렇게직급에따라방의크기부터다르니공무원이승급에사활을걸수밖에없고또같은1급이라도기관장과참모는방크기가역시달랐기때문에공무원들은다투어서기관장문패를걸고싶어했다.

과천 청사엔‘ 끗발없는 ’부처부터 우선 입주

과천에 자리잡은 정부 제2종합청사도 이때 자리를 잡고 정부 각 부처가 이사를 했다. 과천청사는 이미 2개 동이 완성되어 1동은 8층 8,800평에 법무부, 농수산부, 건설부가 들어갔고, 2동은 7층짜리도 6,600여 평 건물에 국가안보회의, 보사부, 과학기술처 등이입주를마쳤다.

“ 처음에는 누가 중앙청에서

정부 수립 제10주년을 경축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중앙청.

74~76격동반세기-12 1904.5.9 4:46 AM 페이지76

세종로 정부청사

과천까지 밀려나려고 하겠소? 과천은 '중앙'이 아니라 경기도 과천이오. 그러니까 서울과 과천은 다르지요. 서울이낭(낭떠러지)이라니까과천서부터 기어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소? 과천은 서울로 기어올라가는 곳인데 권위 의식에 가득찬 관료들이과천청사로가는걸좋아할리가 없지요. 그래서끗발없는부처만간다고했는데…. 그때만해도서울관료가 과천까지 출퇴근하자면 보통 어려운교통여건이아니었지요."

"그래도 끗발좋은법무부도과천으로갔지않소?"

"끗발 없어 별 볼일 없는 부서만 그리 쫓겨난다는 공무원들의 불평을 잠재우려고 법무부를끼워팔기로보냈던것이지요. 여기에다1·2동에 이어 3·4동이 준공되면 1개 동에 6,600명씩 나오니까경제부처들이계속입주할것입니다."

지하철 4호선과 서울대공원으로 '뜬과천'

셋방살이로관청의권위를구기는것보다야열배 나낫다. 이래서과천청사도지하철4호선이뚫리고 고속화도로가 연결되어 인기가 좋아졌고 여기다가 서울대공원이 옮겨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천이 뜨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과천은 정부 제2종합청사 하나만으로 시세가 오른 것이 아니다. 과천에 더 큰바람을 낸 것은 '창경원 동물원'이 '과천서울대공원'으로이사를한훈김이다. 여기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가고 서울랜드의 어린이 인기 시설이붙어쾌적하고즐거운과천을만든것이다.

"일제시대부터창경원벚꽃놀이와동물원구경은 인기 코스 아니었소? 그런 창경원이 과천으로 이사 갔으니상춘인파가그리로몰린것이지요."

"창경원이어떻게과천으로갔소? 정부종합청사를 따라갔소?"

"두가지대형건설이누이좋고매부좋게서로상승효과를낸것입니다. 애초서울대공원종합계획이 처음나온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교통이복잡해지고인구가폭증하면서창경원동물들이공해, 특히소음공해에시달려어디론가옮겨야만됐는데옮길곳이마땅찮았습니다. 그러다가지금의과천으로확정하고 이전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1978년10월에 기공식을올려1984년5월까지6년공사를했는데과천종합청사도같은시기에공사를진행했습니다."

서울대공원은136만평의땅덩어리다. 이것을서울시가 1980년 12월에 14억원을주고김재춘씨한테서 소유권을이전받았는데애초장소는대공원건설이 아니라핵무기연구시설을꿈꾼 '비밀의땅'이었다.

"그것이어떻게김재춘씨땅이되었소?"

"1968년박정희대통령이중앙정보부장을시켜이 땅을비밀리에사두도록지시했다는것입니다. 그때 박대통령은안보문제로우리나라가미국과기묘한 관계에빠지자핵을독자적으로갖겠다는결심을하고그연구기지를만들기위해땅매입을시킨것입니다. 그때 김재춘 씨는 대규모로 농장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그농장에서땅을사는것처럼비밀을유지하면서땅을사게했지요."

"돈은?"

"제일은행에서빌렸는데나중에보니까그곳에는 핵연구시설을세우기에적합하지않다는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백지화된데다가, 1971년에는그린벨트로묶여개발도불가능하게되어은행이자만늘어갔습니다. 그것을1980년국보위때김재춘씨가비밀 진정을 했고, 사실로판명되자 정부가은행 빚을 탕감하여갚아주는조건으로넘겨받도록하여, 결국은 이땅에서울시가서울대공원을조성했던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과천에 있으면서도 서울대공원이 된것이지요."

중앙청에서 과천 청사로, 의식변화의표상

과천에 있는서울 땅. 또 과천에있는정부제2종합청사지만, 그당시까지만해도지방화시대가아니어서지금처럼이러쿵저러쿵하는지역간시비나이해 관계 힘 겨루기는 없었다. 여기다가 '중앙청의 권위에서' 과천 제2종합청사로 이름부터 옮겨가는 과정이야말로그대로우리땅의민주주의정부가걸어온의식변화의표상이아니겠는가. 그러니까따지고 보면 정부의 건물에도 그 시대의 명암과 변천이 그려진이정표를모두가달고있는셈이다.

건설산업의 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해오신원로건설인선배들의 정열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업의 역사도 제대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이기억하고계시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야사, 비화 등을 찾고 있습니다. 사나이들의거친숨소리와뜨거운 땀방울, 그리고 의리와 배신… 등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채택된 이야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기대합니다.